

한국인·한국문화의 뿌리를 찾아

한국의 기원 밝힌 책들 꾸준... 다양한 대중서 나오길

미래에 대한 '꿈꾸기'의 좌절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최근 서점가에는 인류의 기원을 밝히거나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 선사시대 인류의 삶을 밝히는 책들이 독자들의 큰 관심을 끈다. 《최초의 인간 루시》《5천년 전의 남자》《인류의 기원》《신의 지문》 같은 번역서들이 인기를 끌자 한 대형서점에는 아예 '인류학, 고고학'이라는 특설코너를 마련, 이 분야 번역서와 국내 저서들을 함께 모아놓기도 했다. 결국 인류 보편의 기원을 찾는 책들의 인기에 이끌려 한국의 뿌리를 찾는 책들에 대한 관심이 부추겨진 셈이다.

한국문화의 뿌리 찾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찾기 힘든 현대인들이 황폐한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과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진단이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무거운 책은 읽기 싫어하지만 무언가 의미있는 독서는 해야 한다는 우리 독자들의 지적인 허위의식과 '문화'를 상품화한 출판사의 전략이 잘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서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한국인 한국문화의 뿌리를 밝혀줄 만한 책들을 모아보면 약 10여종에 이른다. 한국의 기원이나 우리 민족의 기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선 고고학 개론서를 읽어 보자 한다.

서울대 박물관장인 최몽룡 교수의 《재미 있는 고고학 여행》(학연문화사)은 '김해 대성동 고분' '무녕왕릉' 같은 국내 유적 및 '북경원인' '마왕퇴 고분' 같은 나라 밖의 유적 등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발굴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고고학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교양 고고학》(최무장 지음, 건국대 출판부)은 교과서적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고고학 개론서라 할 만하다. 고고학의 특징과 성격, 지질학과 체질인류학같은 고고학 방법론의 특징 등을 해설한다. 한국의 선사문화, 한민족의 기원에 대한 언급도 있다.

《고고학 이야기》(이선복 지음, 가서원)는 고고학하면 '인디아나 존스'를 떠올릴

한국인·한국문화의

뿌리를 밝혀주는 책들이

인류 보편의 기원을

찾는 독자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기원과

옛문화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찾고자 한 책들은

아직까지 지나치게

전문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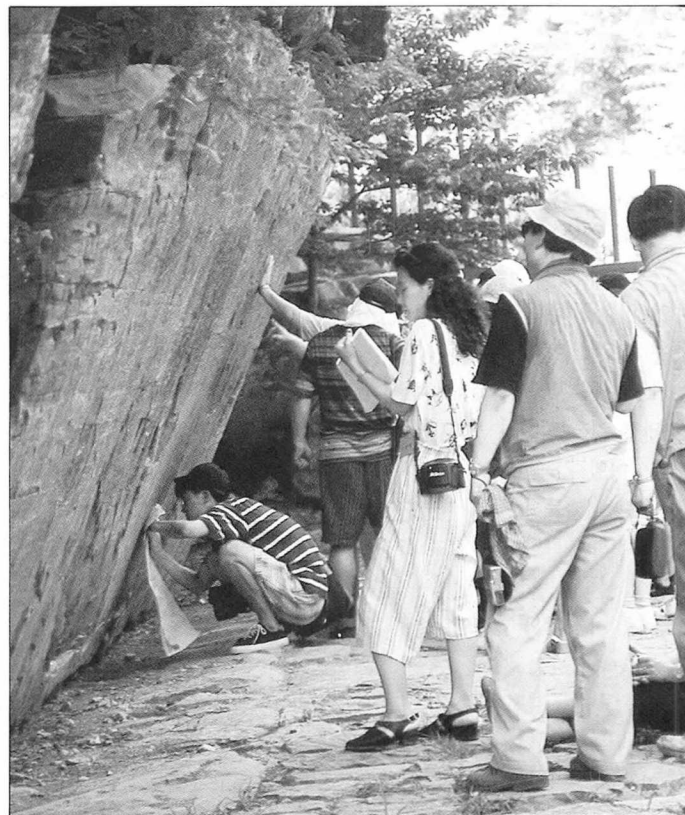
만큼의 상식밖에 없는 일반인들을 위한 고고학 안내서다. 우리나라 고고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저자의 날카로운 문제의식도 읽을 수 있다. 한민족의 기원지는 어디이며 우리의 역사는 언제부터 비롯됐는가의 우리의 '뿌리'를 찾는 일의 첫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한국고대문화의 기원》(이형구 지음, 까치)은 한민족의 기원지가 어디인가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기원이 종전의 시베리아나 오르도스가 아니라 발해 연안이라고 추정한다. 아직 학계에서는 정설로 인정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쉽게 구하기 힘들었던 중국측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재해석한 저자의 주장은 관심을 끈다.

《한반도의 구석기문화》(최무장 지음, 집문당), 《우리의 선사문화》(이용조 외 지음, 지식산업사)는 한반도에 존재한 구석기문화를 밝힌 책이다. 《한반도의 구석기문화》는 지금까지 발표된 구석기 관련 발굴보고서와 논문들을 통해 구석기문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충북대 선사연구실에서 펴낸 《우리의 선사문화》(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의 발굴로 인해 새롭게 수용된 '전기 구석기' 문화를 중심으로 우리 선사문화를 총체적으로 살핀다.

개론서, 발굴보고서가 주류

이상의 책들이 고고학적 성과들을 소개하고 이에 근거해 우리 민족의 기원과 옛문화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 것들이라면 언어



한반도의 원류를 찾는 작업이 출판에서도 활발하다. 사진은 임각화 답사현장.

나 신화, 암각화 등 옛 조상들이 남긴 유·무형의 유산들을 통해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고자 한 노력들도 있다. 《한국의 창세 신화》(김현선 지음, 길벗), 《알타이 신화》(박시인 지음, 청노루)는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한민족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신화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한국의 창세신화》는 세상이 생기게 된 내력을 일컫는 '창세신화(創世神話)' 중 특히 무당들에 의해 전승돼오는 창세신화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규명한다. 《알타이 신화》는 범위를 넓혀 한반도, 만주, 중국, 몽고, 일본, 중앙 및 서남아시아, 시베리아 등 알타이 민족들의 신화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알타이 어족이 지닌 우주관, 인생관, 통치이념 등을 밝힌다. 《알타이·우랄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장명하 지음, 대륙연구소 출판부)는 혈통, 전통적 사고방식, 언어·풍속·습관·생활양식·민족정서 등 여러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우랄·알타이어족의 기원을 밝힘으로써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고자 한 책이다.

문자가 사용되기 전 선사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바위나 암벽에 그린 그림은 오랜 옛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숨결을 가장 쉽게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사슴, 멧돼지, 호랑이 같은 사실적인 그림이나

동심원, 마름모, 삼각형 같은 상징적인 그림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 암각화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도안을 함께 수록한 《한국의 암각화》(한국역사민속학회편, 한길사)는 한국과 한국인의 원초적 모습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하다.

지나치게 전문적인 게 흠

한국·한국인의 기원에 궁금증을 가지고 서점에 찾아간 독자들이 만나게 되는 관련 책들은 아직까지 지나치게 전문적이다. 번역서의 쉽고 매끄러운 문장, 다양한 접근법, 소설을 능가하는 흥미로움에 비하면 발굴보고서나 개론서가 주를 이루는 우리 책들은 성미 급한 독자들에게는 실망을 안겨 주기도 한다.

이에 대해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이선복 교수는 우리나라 고고학이 학문적 연륜도 짧고 연구인력도 태부족해 외국처럼 다양한 대중서들을 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교수는 "외국의 번역서들이 일반독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되기는 했지만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보다는 하나의 모티브를 크게 불러서 픽션처럼 씌어진 것도 적지 않아 진실을 호도할 수도 있다"면서 독자들의 세심한 독서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박남정 기자